

2018

 LINDENBAUM
ORGANIZATION



LIST

1. 사단법인 린덴바움
2.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3. 보도자료 및 영상 링크
4. 2018년 주요 프로젝트

PROJECT 1. 5월 유엔세계식량계획 연주

PROJECT 2. 8월 린덴바움 페스티벌

PROJECT 3. 12월 해외 투어

INTRODUCTION

(사)린덴바움은 ‘음악은 말보다 강력한 소통의 힘을 가진다(Music Beyond Words).’는 사명을 바탕으로 인종과 국적, 정치의 벽을 뛰어넘어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One People One Harmony’ 가치를 확산하여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음악을 매개로 IT기술과 감성의 결합을 통해 지리적 한계,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공감대 형성을 시도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이 소통하고 나아가 사회로 퍼져 마침내 남북한 문화교류를 끌어내는 한반도의 평화적 울림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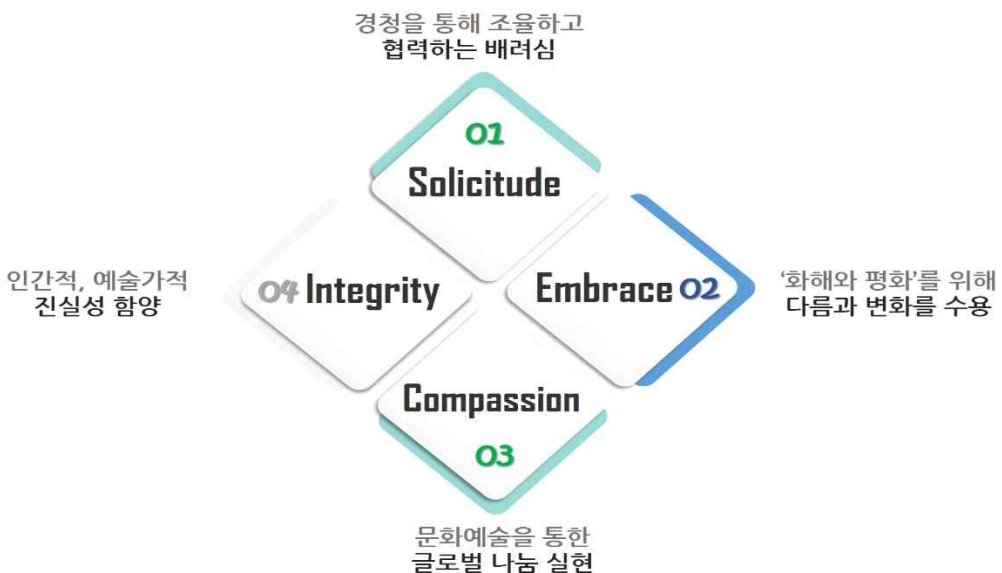
남북의 안정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지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 이미지를 저변에 확대하고 그 가치 및 발전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남북문화교류 활동의 장으로 세계 유일 분단 지역 DMZ를 각종 문화예술 활동의 유치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전국화 세계화를 이루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MISSION

Music Beyond Words

- 음악은 말보다 강력한 소통의 힘을 갖는다.

VISION



사단법인 린덴바움은 ‘음악교육을 통한 글로벌 평화 나눔’을 주제로 국내를 넘어 세계와 함께 발맞춰 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린덴바움 오케스트라가 가진 하나의 호흡, 하모니를 통해 진정한 화합과 소통,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울림을 전달하고자 한다.

2018년 주요 사업 소개

PROJECT 1. WFP와 함께하는 평화콘서트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은 우리 세대에 기아를 퇴치한다는 뜻의 제로헝거(Zero Hunger)를 사명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 기관으로, 1961년에 창립된 이래 긴급 구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구호 식량을 제공하여 생명을 구하고 있다. 제로헝거는 UN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 두 번째 목표로 선정되었다.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음악의 가치를 가지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 글로벌 평화 나눔을 주제로 하는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WFP의 기아 인구가 0이 되는 하나의 미래를 위한 챌린지에 동참하여 나눔 문화에 기여하였다.

ONE FUTURE, #Zero Hunger

2030년까지 함께 힘을 모아 기아 인구가 0이 되는 하나의 미래, 제로헝거를 달성

ONE PEOPLE, #One Harmony

인종과 국적을 넘어 하나의 호흡으로 평화를 연주하는 글로벌 평화 나눔을 달성



2018.05.15 ‘WFP 제로헝거 챌린지 하모니 공연’

5월1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유엔세계식량계획(이하 WFP)과 (사)한국외식산업협회의 제로헝거(Zero Hunger)를 위한 음식물 절감 캠페인 간담회가 개최됐다.

린덴바움 유스 오케스트라(음악감독 원형준)는 간담회에 초청되어 비슬리 WFP 사무총장 방한을 축하하며 WFP의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의 2번째 목표인 ‘제로헝거’ 달성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는 마음을 담아 ‘인연(김인규작)’ 이라는 곡을 연주했다.

2018.06.16 ‘WFP 제로헝거 트라이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6월16일 덜위치 칼리지 서울에서 린덴바움 유스 오케스트라, 덜위치 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 유스 오케스트라가 WFP 제로헝거 챌린지에 동참하고자 트라이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날 연주회로 얻은 수익금은 WFP 제로헝거 챌린지에 기부되었다.



5.15 WFP 제로헝거 챌린지 하모니 공연



6.16 WFP 제로헝거 트라이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성과

신뢰성

WFP와 제휴 협약

임팩트

문화예술을 통한 글로벌 평화 나눔 실현

2018년 주요 사업 소개

2018.08.06 - 08.12

PROJECT 2. 예일대와 함께하는 UN 세계 청소년의 날 기념 페스티벌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은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2009년 세계적인 거장 샤를 뒤투아와 함께 100인의 젊은 연주자들이 만들어 낸 제1회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로 시작되었다. 세계적인 거장과 신예의 만남을 통한 하모니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육의 중요성과 문화교류의 핵심가치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계기였다.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사회를 위해 쌓아온 음악의 가치를 청소년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 국내외 최고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린덴바움 페스티벌 앙상블 강사들과 함께 린덴바움 유스 오케스트라가 12월 16일 창단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은 8월 12일 UN 세계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예일대학교 심포니와 린덴바움 유스 오케스트라 그리고 청소년 참가자들이 호흡을 맞췄다. 다양한 문화권의 참여 학생들은 페스티벌에서 일주일 동안 멘토 프로그램과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서로의 음을 듣고 조율하고 배려해가며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 냈다.



2018년 주요 사업 소개

PROJECT 3.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해외 투어 연주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세계평화에 관심있는 전 세계 학생들과 함께 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인권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예술적 경험을 토대로 국제적인 리더로 자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콜럼비아 대학에서 7박 8일 동안 합동 오픈 리허설과 컨퍼런스에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미주 린덴바움 페스티벌을 통해 세계 학생들과 함께 인권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고 함께 연주도 하면서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고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도는 인권과 평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유럽대학에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도모하였다. 영국 예후디 메뉴인 학교 합동 공연, 옥스퍼드 대학 신포니에타 지휘자 합동 공연 등을 이루어냈다. 또한 예일대학교 THiNK(There's Hope in North Korea) 초청 포럼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이 각자의 이념과 가치를 나누며 한 단계 성장해 나갔다.

오케스트라는 국적과 문화를 넘어 하나의 호흡을 통해 하모니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서로 다른 악기가 조율되고 서로 배려하며 만든 연주회를 통해 학생들은 자존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일 뿐 아니라 사회적 평화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